

# 『병와가곡집』의 악곡 편제와 가곡사적 위상\*

## - 삭대엽과 낙희조를 중심으로

이상원\*\*

### <차 례>

1. 서론
2. 삭대엽의 성격
3. 낙희조의 성격
4. 『병가』의 가곡사적 위상-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병와가곡집』의 악곡 편제를 통해 이 가집의 가곡사적 위상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병와가곡집』에 수록된 악곡 중 특히 삭대엽과 낙희조에 주목하였다.

삭대엽은 수록 작품 수가 매우 적다는 점, 후대 가집에 율당삭대엽으로 수록된 것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의 경우도 우조와 계면조를 넘나들며 불린 곡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율당삭대엽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낙희조는 그 위치가 18세기 가집들과 다르고 오히려 우조와 계면조의 분화를 반영한 19세기 가집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조와 계면조의 분화로 파생되기 시작한 우락, 계락, 열락, 편락 등 ‘낙’ 계열의 악곡들을 두루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 이 논문은 2013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이런 삭대엽의 성격과 낙희조의 위치 등 『병와가곡집』의 악곡 편제를 고려할 때 『병와가곡집』은 단순히 작품 수에 있어서만 최고의 가집이 아니고 명실상부 18세기 가집에서 19세기 가집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위치한 조선시대 최고의 가집임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계락, 낙시조, 낙희조, 『병와가곡집』, 삭대엽, 열락, 우락, 율당삭대엽, 편락

## 1. 서론

『병와가곡집』(이하 『병가』로 약칭)은 조선후기에 편찬된 가집 중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집이다. 이런 위상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인본<sup>1)</sup>과 주석집<sup>2)</sup>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집의 실체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가집의 악곡 편제와 관련하여 삭대엽과 낙희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삭대엽과 낙희조의 성격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병가』의 가곡사적 위상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병가』는 손완섭에 의해 처음 소개된<sup>3)</sup> 이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도 다른 가집과 비교한 연구가 제출되었다.<sup>4)</sup> 여기서는 삭대엽

1) 『악학습령』,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1978.

2) 김용찬, 『교주 병와가곡집』, 월인, 2001.

3) 손완섭, 「고시조의 새 자료-가곡집 <여중락(與衆樂)>을 발견」, 《영남일보》, 1956년 9월 12일.

4) 육민수, 「18세기 가집 편찬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탐색-『병와가곡집』 편찬 시기와 『청진』의 위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41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과 낙희조를 중심에 놓고 고찰하고자 하기 때문에 『병와가곡집』 전체에 대한 연구사는 최근에 제출된 연구에 미루고, 삭대엽과 낙희조에 관련된 연구사에 대해서만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삭대엽과 낙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삭대엽에 대해서는 김용찬과 김태웅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김용찬은 『병가』의 삭대엽에 대해 “음악사에서 18세기 초부터 초·이·삼삭대엽 이외에 삭대엽 제4의 변주곡이 출현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본 가집에 등장하는 삭대엽이 그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여 삭대엽 제4 변주곡으로 이해하였다.<sup>5)</sup>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이것이 삭대엽 제4 변주곡이 맞다면 삭대엽의 다른 변주곡의 예에 따라 사삭대엽이라 하지 않고 왜 그냥 삭대엽이라 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김태웅은 『병가』 삭대엽에 수록된 18개 작품의 타가집 수록 현황을 일일이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유동적 악곡’으로 규정하였다.<sup>6)</sup> 김태웅의 견해는 18개 작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유동적 악곡’임을 인정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낙희조에 대해서는 김학성과 김용찬이 대표적으로 논하였다. 김학성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사설시조를 엮어 부르던 악곡”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후에 소용, 삼삭대엽, 낙시조, 편락시조 등으로 변주되어 갔다고 보았다.<sup>7)</sup> 결국 낙희조를 낙시조와 다른 별개의 악곡으로 본 것인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sup>8)</sup> 반면 김용찬은 낙희조는 낙시조의 이칭(異

2013년 여름. 김태웅, 「18세기 후반~19세기 초중반 가집의 전개 양상 연구-『병와가곡집』, 서울대본 『악부』, 『흥비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3.

5) 김용찬, 앞의 책.

6) 김태웅, 앞의 논문.

7) 김학성, 「시조사의 전개와 낙시조」,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8) 『청구영언』(장서각본)에는 삼삭대엽 다음에 낙희조가 실려 있고 수록 작품도 대부분 『청구영언』(진본)의 낙시조와 겹치기 때문에-10수 중 8수가 겹침-이를 통해서 볼 때 낙희조는 낙시조와 같은 악곡이라 할 수 있다.

稱)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낙희조의 풍도형용이 낙시조와 편락시조의 풍도형용을 합친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낙희조=낙시조+편락시조’로 이해하였다. 이런 김용찬의 견해는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희조의 위치가 통상적인 삼삭대엽 다음이 아닌 만항 다음에 놓인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 2. 삭대엽의 성격

『병가』 삭대엽에 관한 최근 김태웅의 논의는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삭대엽의 실체에 대해 상당히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동적 악곡’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삭대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자. 삭대엽이라는 명칭이 함의하는 바는 둘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첫째는 초삭대엽, 이삭대엽, 삼삭대엽 등 삭대엽의 모든 변주곡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삭대엽에 수록된 곡들이 초삭·이삭·삼삭대엽 중 어느 하나로 고정화되어 불리지 않고, 이것으로 불리기도 하고 저것으로 불리기도 하여 유동적이기 때문에 초삭·이삭·삼삭대엽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할 수 없는 작품들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태웅은 이렇게 본 것이다. 그런데 『병가』의 삭대엽을 이렇게 보기에는 수록 작품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다. 『병가』의 삭대엽과 비슷하게 ‘유동적 악곡’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타 가집에도 일부 존재하는데 이들 악곡에 수록된 작품의 양을 보면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니다. 『동국가사』에는 ‘우조 삭엽’이라는 악곡과 ‘계면조’라는 악곡이 있는데, 이들 악곡은

각각 우조와 계면조의 삭대엽 악곡들을 모두 가리키는 통합 명칭으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상당한 양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sup>9)</sup> 또한 『흥비부』에도 우조와 계면조로 다 부를 수 있는 작품들을 각조음이라는 이름으로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 수록된 작품은 143수로 『흥비부』 전체의 32.8%(143/436)에 해당한다. 이들과는 약간 다른 사례로 『청구영언』(가람본)에는 ‘삼삭대엽낙희병초’, ‘만대엽낙희병초’와 같은 악곡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경우에도 각각 73수와 81수가 실려 있어 전체의 10.2%(73/716)와 11.3%(81/716)를 차지하고 있다.<sup>10)</sup> 이에 견주어 보면 『병가』 삭대엽의 18수는 전체의 1.6%(18/1109)로 지나치게 적은 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는 초삭 · 이삭 · 삼삭대엽과 구별되는 삭대엽의 변주곡의 하나이되 아직 뚜렷한 명칭을 얻지 못한 곡들을 편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러면 초삭 · 이삭 · 삼삭대엽과 구별되는 삭대엽의 변주곡으로서 『병가』 때만 하더라도 뚜렷한 명칭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제 이름을 갖게 된 악곡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율당삭대엽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병가』의 삭대엽이 곧 율당삭대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병가』의 삭대엽이 율당삭대엽일 가능성은 우선 『악부』(서울대본, 이하 『악서』로 약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 ‘우조 삭엽’에는 64수, ‘계면조’에는 290수가 실려 있는데 이는 각각 전체의 15.5%(64/414), 70.0%(290/414)에 해당하는 것이다.

10) 『해동가요』(박씨본)의 ‘소용삭대엽가합자초집’의 11수만이 전체의 2.0%로 다소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소용과 삼삭대엽이 원래 적은 수의 작품이 배치되는 악곡이라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 〈표〉 『병가』 삭대엽 작품의 『악서』 수록 현황

『병가』 삭대엽 수록 작품	『악서』 율당대엽 수록 여부	여타 가집 율당삭대엽 수록 여부
829 기러기 풀풀 다 나라드니~	433 율당대엽	
830 白雲이 이러나니~	439 율당대엽 <sup>11)</sup>	
831 이성저성 다 지니고~	436 율당대엽	『흥비부』 34 율당삭대엽 『객악보』 71 율당삭엽 『영언』(규장각본) 80 반엽삭엽 『가곡원류』계 가집 율당삭대엽
832 어리거든 취 어리거나~	.	
833 이러타 저러탄 말이~	.	『청구영언』(육당본) 309 율당삭엽 『가곡원류』계 가집 율당삭대엽
834 世事   삼그올이라~	.	
835 天地는 萬物之逆旅   오~	432 율당대엽	
836 西塞山前 白鷺飛호고~	.	
837 뒷 퇴혜 재구름 끼고~	.	
838 岳陽樓에 올라 안즈~	435 율당대엽	
839 壬戌之秋七月 旣望에~	.	
840 青天 구름 밝괴~	437 율당대엽	『동국가사』 91 율당삭엽
841 건너셔는 손을 치고~	.	『흥비부』 33 율당삭대엽
842 九月 九日 黃菊 丹楓~	.	『동국가사』 86 율당삭엽 『객악보』 74 율당삭엽 『청구영언』(육당본) 311 율당삭엽 『가곡원류』계 가집 율당삭대엽
843 띄 업슨 손이 오난 늘~	.	
844 즈늬 집의 술 익거든~	48 이삭대엽	
845 思郎도 호엿노라~	.	
846 花山에 春日暖이오~	322 이삭대엽	

총 18개 작품 중 6개가 『악서』에도 율당대엽에 실려 있다. 이렇게만 보면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미수록 작품을 제외하고 수록 작품만 놓고 보면 총 18개 중 『악서』에 수록된 것은 8개이고 그 중 6개가 율당대엽에 실려 있다. 이는 75%(6/8)에 해당하는 것이다. 『악서』는 심재완<sup>12)</sup>을 필두로 여러 논자에 의해 『병가』와 가장 친연성이 있는 가집으로 지적된 것이다. 이런 『악서』에 75%에 해당하는 작품이 율당대엽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병가』 삭대엽이 율당삭대엽을 가리킬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병가』 삭대엽이 율당삭대엽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관건은 나머지 12개를 율당삭대엽으로 볼 만한 근거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2개 작품에 대해 지금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833번, 841번, 842번 작품은 여타 가집에 율당삭대엽으로 수록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833번은 『청구영언』(육당본)의 율당삭대엽에, 『가곡원류』계 가집의 율당삭대엽에 실려 있다. 841번은 『흥비부』의 율당삭대엽에 실려 있다. 그리고 842번은 『동국가사』와 『객악보』 및 『청구영언』(육당본)의 율당삭대엽에, 『가곡원류』계 가집의 율당삭대엽에 실려 있다. 후대의 가집에 율당삭대엽으로 실려 있다는 것은 『병가』 시대에도 율당삭대엽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머지 작품들의 경우 훨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832번과 834번은 율당삭대엽으로 볼 만한 분명한 근거가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앞뒤에 배치된 831번, 833번과 내용이 유사하여 『청구영언』(진본)의 이삭대엽 무명씨 ‘방랑’ 부분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작품<sup>13)</sup>이

11) 93 이삭대엽에도 실려 있음.

12)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13) 831, 832, 833, 834번은 『청구영언』(진본)의 이삭대엽 무명씨 ‘방랑’ 부분에 각각 329, 331, 330, 332번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라는 점에서 비교 검토를 통한 추론이 가능하다. 831번과 833번은 동일한 악곡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즉 『병가』 이전의 가집에는 이삭대엽 또는 이삭대엽과 삼삭대엽에,<sup>14)</sup> 『병가』에는 삭대엽에, 『병가』 이후의 가집에는 율당삭대엽에 실려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동국가사』의 수록 양상이다. 831번은 『동국가사』의 ‘우조 삭엽’에 실려 있는 반면 833번은 『동국가사』의 ‘계면조’에 실려 있다. 동일한 악곡 변천사를 보여주는 831번과 833번이 『동국가사』에는 다른 악곡에 수록된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추정컨대 우조와 계면조의 분화가 확립되어 가던 초기에 이들 악곡은 어느 한쪽으로 고정화되기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조와 계면조를 넘나들던 상태로 존재하다가 후에는 이런 특성으로 인해 전반부는 우조로 부르다가 후반부는 계면조로 바꾸어 부르는 율당삭대엽으로 정착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832번과 834번에 적용하면 우조와 계면조를 넘나들던 상태로 존재하던 이들 작품은 『병가』에서 일시적으로 율당삭대엽으로 불리다가 나중에는 계면조 이삭대엽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836번은 수십 개 가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19세기 초반 가집<sup>16)</sup>에는 계면조로, 19세기 중·후반 가집<sup>17)</sup>에는 여창 계면조로, 20세기 초반 『대동풍아』에는 여창 우조<sup>18)</sup>로 불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창과 여창, 그리고 우조와 계면조를 자유롭게 넘나들던 곡임을 알 수 있다.

837번은 『병가』 외에 『해아수』와 『청구영언』(장서각본)에만 실려 있기

14) 832번은 『청구영언』 계열의 가집에는 이삭대엽에, 『가조별람』 계열의 가집에는 삼삭대엽에 실려 있다. 반면 834번은 『청구영언』 계열과 『가조별람』 계열 공히 이삭대엽 무명씨에 실려 있다.

15) 832번과 834번은 우조와 계면조의 구분을 표시한 가집 중에는 유일하게 『청구영언』(육당본)에만 실려 있는데, 이 가집의 계면조 이삭대엽에 수록되어 있다.

16) 『동국가사』, 『흥비부』, 『객악보』, 『가보』 등.

17) 『영언』(규장각본), 『청구영언』(육당본), 『가곡원류』 등.

18) 『대동풍아』의 우평조 중삭대엽에 실려 있는데 여기 우평조는 여창 우조에 해당한다.

때문에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해아수』에서는 주의할 내용을 찾을 수 없지만,<sup>19)</sup> 『청구영언』(장서각본)의 수록 양상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청구영언』(장서각본)은 18세기 가집의 특징을 보여주는 전반부와 19세기 가집의 특징을 보여주는 후반부로 뚜렷이 대별되는데,<sup>20)</sup> 이 작품은 후반부에 실려 있다. 그런데 후반부의 체제를 보면 초중대엽부터 초삭대엽까지는 우조와 계면조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반해 이삭대엽 이하는 ‘우조 계면조 평조’를 합하여 수록하고 있다. 『병가』 837번 작품은 ‘우조 계면조 평조’를 합하여 수록한 삼삭대엽의 첫 번째 작품으로 실려 있다. 이로써 이 작품이 우조와 계면조로 자유롭게 맞추어 부를 수 있는 곡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839번은 18세기 가집인 『가조별람』과 『시가』(박씨본)에는 삼삭대엽에 실렸다가 19세기 초·중반 여창 계면조 이삭대엽을 거쳐 19세기 중·후반에는 여창 계면조 두거로 정착된다. 이삭대엽과 삼삭대엽을 넘나들다 최종적으로 두거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악조의 넘나들이 있었던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런데 이 작품의 종장에 주목할 경우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됨을 볼 수 있다.

壬戌之秋 七月既望에 비를 타고 金陵에 느려  
손조 고기 낙가 고기 주고서 술을 스니  
오늘은 蘓東坡 업스니 놀 니 업서 흐노라.

밑줄 친 종장 첫째 음보는 ‘오늘(날)은’, ‘지금에’, ‘그곳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의 가집이 ‘지금에’와 ‘그곳에’ 중

19) 이 작품은 『해아수』의 ‘삭대엽’ 부분에 실려 있는데 ‘삭대엽’은 모든 삭대엽 작품을 뭉뚱그려 수록한 포괄적 악곡명이다.

20) 이에 대해서는 ‘이상원, 『18세기 가집 편찬과 『청구영언』(정문연본)의 위상』, 『한국시가연구』 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참조.

21) 김태웅 역시 이 작품이 『청구영언』(장서각본)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는 삼삭대엽 부분에 삼삭대엽과 만형청류가 함께 수록된 것을 더 중요하게 해석하였다. ‘김태웅, 앞의 논문.’ 참조.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반면 ‘오늘(날)은’은 『병가』 외에 『가조별람』이 유일하다. 따라서 『병가』의 이 작품은 『가조별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작품이 실린 『가조별람』의 삼삭대엽에 수록된 작품 중 ‘삼삭대엽(『가조별람』)→‘삭대엽(『병가』)→‘율당삭대엽(19세기 가집)’의 경로를 거친 것이 여럿 보인다는 점이다. 831번, 833번, 842번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839번 작품 또한 율당삭대엽으로 불렸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843번은 18세기 가집에는 이삭대엽에, 19세기 초·중반 가집에는 우조 또는 계면조 이삭대엽에,<sup>22)</sup> 19세기 후반 『가곡원류』 계열에는 우조 두거에 실려 있다. 이로써 우조와 계면조를 넘나들며 불리던 곡임을 알 수 있다.

844번은 18세기 가집에는 이삭대엽에, 19세기 후반 『가곡원류』 계열에는 계면조 두거에 실려 있다. 그런데 19세기 초·중반 가집에서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동국가사』에는 계면조에, 『홍비부』에는 각조음에, 『청구영언』(육당본)에는 우조 이삭대엽에 실려 있다. 이로써 이 작품 역시 우조와 계면조를 넘나들며 불리던 곡임을 알 수 있다.

845번은 『병가』 외에 4개 가집에 실려 있으나 모두 우·계면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 가집이어서 판단이 불가능하다.

마지막 846번은 대부분의 가집에서 계면조 이삭대엽에 수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세기 초에 편찬된 『대동풍아』에서만 유일하게 우조 이삭대엽에 수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여기서도 우조와 계면조를 넘나들며 불리던 곡임을 엿볼 수 있다.

이상 『병가』 삭대엽에 수록된 18개 작품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병가』 삭대엽은 율당삭대엽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쯤 되면 가집에 대해 좀 아는 독자라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율당삭대엽은 전반부는 우조로 부르고 후반부는 계면조로

22) 『객악보』와 『영언』(규장각본)에는 우조 이삭대엽에 실려 있는 데 비해 『청구영언』(육당본)에는 계면조 이삭대엽에 실려 있다.

부르는 곡으로, 우·계면의 분화가 나타나면서 우조에 해당하는 곡을 다 부르고 난 뒤 계면조에 해당하는 곡으로 넘어가기 위해 요구되던 곡이다. 그런데 『병가』의 경우 아직 우·계면의 분화가 나타나기 이전 상태의 가집인데 어떻게 율당삭대엽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지금까지 『병가』의 해독을 가로막은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병가』가 우·계면의 분화가 나타나기 이전 상태의 가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병가』는 우·계면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놓치고 있었을 뿐이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해 보기로 하자.

### 3. 낙희조의 성격

낙희조가 낙시조와 동일한 악곡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이제 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도 좋을 듯하다. 비교적 근자에 발견된 가집 중 일부에서 낙희조(또는 낙희사)라는 악곡이 추가로 발견됨으로써 『병가』의 낙희조가 특별한 악곡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sup>23)</sup> 또 거기에 수록된 노래가 대부분의 가집에서 낙시조로 분류된 것들이라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낙희조는 곧 낙시조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문제는 『병가』의 낙희조, 즉 낙시조가 가리키는 정확한 의미 범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가』의 악곡 편제를, 전후 시기의 다른 가집과 견주어 보기로 한다.

23) 대표적으로 『청구영언』(장서각본)과 『시여』(김씨본)을 들 수 있다.

『해동풍아』 <sup>24)</sup>	『병가』	『청구영언』(육당본)
		우조 초중대엽
		이중대엽
		삼중대엽
		진화엽
		계면 초중대엽
		이중대엽
		삼중대엽
		북전
		우조 초삭대엽
		이삭대엽
		삼삭대엽
		소용이
		율당삭엽
		계면조 초삭대엽
		이삭대엽
		삼삭대엽
		만횡
		언릉
		릉
		계면 낙시조
		우 낙시조
		언락
		편락
		편삭대엽
초중대엽(1)	초중대엽(7)	
이중대엽(1)	이중대엽(5)	
삼중대엽(1)	삼중대엽(5)	
초북전(1)	북전(4)	
이북전(1)	이북전(1)	
초삭대엽(1)	초삭대엽(11)	
이삭대엽(473)	이삭대엽(763)	
삼삭대엽(34)	삼삭대엽(32)	
낙시조(56)	삭대엽(18)	
편락시조(6)	소용(5)	
소용(4)	만횡(114)	
편소용(1)	낙희조(104)	
만삭대엽(58)	편삭대엽(40)	

『해동풍아』는 북전이 초북전과 이북전으로, 낙시조가 낙시조와 편락시조로, 소용이 소용과 편소용으로 분화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18세기 가집의 악곡 분화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과 『병가』의 악곡 편제를 견주어 보면 중요한 차이가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낙시조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해동풍아』를 비롯하여 18세기의 모든 가집들에서 낙시조는 삼삭대엽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병가』에서는 소용과 만횡의 뒤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24) 일반적으로 『해동가요』(일석본)로 통하는 가집이다.

것은 낙희조가 만흥보다 뒤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흥은 『청구영언』(진본)의 만흥청류 이래 18세기 가집에서 항상 마지막을 장식하던 악곡이다. 위 『해동풍아』의 마지막에 있는 만삭대엽은 곧 만흥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듯 줄곧 마지막을 장식하던 만흥이 앞으로 이동하고 그 뒤에 낙시조가 배치된 것은 무얼 의미하는 걸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오른쪽에 제시된 『청구영언』(육당본)을 참고해 보도록 하자. 『청구영언』(육당본)은 우조와 계면조로 나누어 가곡 한 바탕을 즐기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를 『해동풍아』와 견주어 보면 삼삭대엽까지는 우조와 계면조가 분화된 것을 빼면 별 차이가 없다. 가장 큰 차이는 계면조 삼삭대엽 다음부터라 하겠는데, 만흥에서 분화된 만흥 · 언롱 · 룡 등 ‘농’ 계열의 악곡이 먼저 나오고 있으며, 낙시조에서 분화된 계락 · 우락 · 언락 · 편락 등 ‘낙’ 계열의 악곡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다. 즉 18세기 가집의 낙시조에 해당하는 악곡들이 만흥에 해당하는 악곡들의 뒤에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이것을 다시 『병가』의 악곡 편제와 견주어 보면 마지막의 만흥, 낙희조, 편삭대엽의 체제가 19세기 가집의 농, 낙, 편 계열의 체제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병가』의 악곡 편제는 우조와 계면조의 구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큰 틀에서 보면 18세기 가집보다 오히려 19세기 가집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 · 계면의 분화와 상관없이 편찬된 18세기 가집 중에는 낙시조가 만흥보다 뒤에 배치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낙시조가 만흥보다 뒤에 오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로라도 우 · 계면의 분화를 보이는 가집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조』(경대본), 『동국가사』 등은 아직 우 · 계면의 체제가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집에서도 낙시조가 만흥보다 뒤에 수록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낙시조가 만흥보다 뒤에 배치되는 것은 우 · 계면의 분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sup>25)</sup>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병가』 낙희조가 만흥보다 뒤에 배치된 것은 곧 『병가』가 우계면의 분화가 시작되던 시기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하겠다.

따라서 『병가』의 만횡과 낙희조는 18세기 가집의 만횡이나 낙시조와 그 명칭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즉 『병가』의 만횡은 우·계면의 분화로 기존의 만횡이 만횡·언릉·릉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불리던 작품들을 모은 것으로 봐야 하고, 마찬가지로 낙희조도 기존의 낙시조와 편락시조가 계락·우락·얼락·편락 등으로 분화되어 불리던 작품들을 모은 통칭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는 낙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낙희조에 수록된 작품들이 실제로 계락·우락·얼락·편락 등의 악곡으로 다양하게 나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비교를 위해 18세기 말의 『해동풍아』, 19세기 초의 『시조』(경대본), 19세기 중반의 『청구영언』(육당본), 19세기 후반의 『가곡원류』(국악원본) 등 4개 가집을 선택하여 그 가집에 『병가』 낙희조가 수록된 현황을 살펴보았다. 【부록 참조】

우선 『병가』 낙희조의 104수 중 『해동풍아』에도 수록된 것은 56수였다. 이 56수 중 41수가 낙시조 계열(낙시조 37, 편락시조 4)에서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15수는 이삭대엽(5), 삼삭대엽(1), 소용(1), 만삭대엽(8) 등에서 온 것이다. 결국 절대다수가 낙시조 계열과 만횡에서 온 것이라 하겠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만횡이다. 18세기에서 19세기로 가면서 새로운 악곡이 생겨나고 기존 악곡이 변신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변화의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그 중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것이 바로 낙시조가 아닌가 한다.<sup>25)</sup> 초기 가집에서는 낙시조가 삼삭대엽 다음

25) 우·계면의 분화와 만횡의 위치 이동 사이의 상관성과 관련해서는 『시조』(경대본)이 하나의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집에서는 악곡별로 우조와 계면조의 짝을 맞추어 배열하고 있는데, 만횡은 우조 대엽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소용과 짝을 이뤄 계면조 대엽조의 마지막을 부르는 곡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만횡이 계면조 삼삭대엽의 바로 다음으로 이동하면서 만횡과 동질적인 ‘릉’ 계열의 악곡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낙’ 계열의 곡들은 자연스럽게 그 뒤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볼 수 있다.

26) 낙시조의 혼란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靑丘永言』(가람본)이다. 이 가집에는 낙시조와 연관된 악곡이 삼삭대엽낙희병초, 만대엽낙희병초, 편락병초, 낙 등 4개

에 붙어 있으며 작품 수도 많지 않고 평시조에 가까운 작품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후대로 가면서 사설시조가 주로 수록되는 후반부로 위치가 이동하게 되고 이와 함께 사설시조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작품 수도 많아지게 된다.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만황의 낙시조화’로 보인다. 부록으로 제시한 <표>를 보면 『해동풍아』의 만삭대엽 8수가 다른 가집에서는 대부분 낙시조 계열로 수록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해동풍아』나 『병가』의 낙시조(낙희조)에 수록된 것들 중 일부가 『시조』(경대본), 『청구영언』(육당본), 『가곡원류』(국악원본)에 만황이나 얼룡, 룡으로 수록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만황과 낙시조가 상호 넘나드는 현상이 빈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up>27)</sup>

다음으로 『병가』 낙희조의 104수는 후대 가집에서 대부분 낙시조 계열의 악곡으로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조』(경대본)에는 『병가』 낙희조의 작품이 59수 실려 있는데 이 중 51수가 우락, 계락, 편락에 실려 있다.<sup>28)</sup> 나머지 8수 중 2수(이삭대엽)를 제외한 6수는 ‘룡’ 계열의 악곡에 실려 있다.<sup>29)</sup> 또한 『청구영언』(육당본)에는 『병가』 낙희조의 작품이 100수나 수록되어 있는데 77수가 우락, 계락, 언락, 편락 등에 실려 있다. 나머지 23수 중에는 ‘룡’ 계열이 10수(룡 8, 얼룡 2)로 가장 많고 이삭대엽이 8수, 편삭대엽이 3수, 삼삭대엽과 소용이 각 1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삭대엽이 다소 많은 것이 이상한데 8수 중 1수는 『해동풍아』의 낙시조에 수록되어 있고 또 1수는 『시조』(경대본)의 계락에 실려 있어 『병가』 시절에 낙시조로 존재한 것을 믿을 수 있다. 나머지 작품들 중에도 가집의 폭을 확대하면 낙시조로 불린 것이 확인되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992번 작품의 경우 <표>에 따르면 세 개 가집에는 실려 있지 않고 오직

나 나타나고 있고 이들 악곡에 수록된 작품 수는 무려 255수나 된다. 이는 전체의 35.6%(255/716)에 해당하는 것이다.

27) 『靑丘永言』(가람본)의 ‘만대엽낙희병초’라는 악곡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8) 『시조』(경대본)에는 얼락이라는 악곡이 존재하지 않는다.

29) 만삭대엽 계룡에 3수, 얼룡에 3수가 실려 있다.

『청구영언』(육당본)에만 실려 있는데 이삭대엽으로 수록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과연 이 작품이 낙시조로 불렸다고 볼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가집의 폭을 확대하면 낙시조로 불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동국가사』에 낙시조로, 『흥비부』에 열락으로, 『악부』(나손본)에 열락으로 실려 있다. 이런 점에서 『병가』 낙희조에 수록된 곡들은 모두 당대에 ‘낙’ 계열 악곡으로 불린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가곡원류』(국악원본)에는 78수가 수록되어 있고 이 중 69수가 우락, 계락, 열락, 편락 등에 실려 있다.<sup>30)</sup>

#### 4. 『병가』의 가곡사적 위상-결론을 대신하여

이상 『병가』 악곡 중 그 동안 미해결 과제로 남겨져 있었던 삭대엽과 낙희조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삭대엽은 수록 작품 수가 매우 적다는 점, 후대 가집에 율당삭대엽으로 수록된 것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의 경우도 우조와 계면조를 넘나들며 불린 곡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율당삭대엽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낙희조는 그 위치가 18세기 가집들과 다르고 오히려 우·계면의 분화를 반영한 19세기 가집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계면의 분화로 파생되기 시작한 우락, 계락, 열락, 편락 등 ‘낙’ 계열의 악곡들을 두루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병가』라는 가집이 18세기의 마지막 가집에 그치지 않고 19세기 가집의 시작을 알리는 가집이라는 사실이다.

『병가』는 조선후기에 편찬된 가집 중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한, 가장 방대한 규모의 가집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청구영언』(진본)에서 마련한 틀을 기초로 여기에 새로운 작품들을 계속 축적해 가는 전통을 충실

30) 나머지 9수는 이삭대엽 1, 삼삭대엽 1, 율당삭대엽 1, 소용 2, 만형 1, 농가 1, 편삭대엽 2 등으로 다양하다.

히 계승했기 때문이다. 중대엽, 복전, 삭대엽의 세분된 악곡들로 크게 나눈 뒤 이삭대엽의 경우 유명씨와 무명씨로 나누고 유명씨는 다시 작가의 신분과 시대 순을 고려하여 작품을 배치하는 방식이 『청구영언』(진본)에서 마련되었는데, 그 후 『해동가요』에서는 이런 틀을 유지한 채 약간의 변형을 가하고 작품을 덧붙이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sup>31)</sup> 『병가』는 이렇게 마련된 『해동가요』의 틀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열성어제 : 34~39  
 여말 이전 : 40~54  
 본조 1 : 55~354  
 여향인 1 : 355~393<sup>32)</sup>  
 본조 2 : 394~431  
 여향인 2 : 432~508  
 연대결고 : 509~517  
 여향인 3 : 518~525  
 본조 3 : 526~538  
 명기 : 539~560  
 추가 : 561~562<sup>33)</sup>

『병가』 이삭대엽은 아무런 분류를 하고 있지 않다. 562번 작품 다음에 ‘以下年代姓名欠詳’이라 적혀 있어 이를 기준으로 그 앞이 유명씨 부분이고 그 뒤가 무명씨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삭대엽 유명씨 부분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위와 같이 나름의 질서를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질서는 이미 앞 시기 『해동가요』에서

31) 『해동가요』에서는 이삭대엽 유명씨 부분에서 원래 뒤에 있던 열성어제를 맨 앞으로 배치하고 사대부의 작품을 세 군데로 나누어 분산 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시조 문헌 해제』(신경숙 외 5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의 「해동가요 일석본」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32) 358(윤두서)과 359(조식)는 예외적이다.

33) 561번은 儒川君 淵, 562번은 朴熙瑞의 작품인데 이들 두 작가의 작품은 이미 앞에서 수록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에서 필사할 때 빠뜨린 두 작가의 작품을 유명씨 마지막에 보충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용된 방식이다. 따라서 『병가』 이삭대엽의 경우 18세기 가집의 영향을 받아 작품 수를 최대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병가』는 18세기 가집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하겠다. 『병가』의 이런 의의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삭대엽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로 시야를 확대할 경우 『병가』는 19세기 가집의 특징을 가장 앞서 보여주는 가집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율당삭대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삭대엽이라 하였지만 반우반계로 불리는 새로운 악곡을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낙희조의 순서를 조정함으로써 ‘만황→낙희조→편삭대엽’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 체제는 19세기 가집에 그대로 계승되어 ‘농→낙→편’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따라서 『병가』는 19세기 가집의 새로운 모형을 창출한 가집이라 할 수 있다.

『병가』의 이런 특징은 삭대엽의 변주곡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대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8세기 가집의 경우 중대엽 악곡에는 각각 1수씩 실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병가』는 초중대엽 7수, 이 중대엽 5수, 삼중대엽 5수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이전 시대 금보나 가집에 수록된 중대엽 사설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결과다.<sup>34)</sup> 18세기 가집의 경우 그때까지도 불리고 있던 상징적인 사설 1수씩을 대표로 실는 것이 중대엽 수록 원칙이었다. 그런데 『병가』는 이 원칙을 바꾸어 지금 불리지 않더라도 과거에 중대엽으로 불린 적이 있는 곡은 중대엽으로 분류해 실었다. 문제는 『병가』 이후에 편찬된 19세기 가집들이 『병가』의 영향을 받아 가창의 실질과 상관없이 중대엽의 곡들도 우조와 계면조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병가』는 19세기 가집을 추동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우리는 『병가』가 단순히 작품 수에 있어서만 최고의 가집이 아니고 명실상부 18세기 가집에서 19세기 가집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위치한 조선시대 최고의 가집임을 알 수 있다.

34) 권순희, 「가곡 연창 방식에서 중대엽 한바탕의 가능성」, 『민족문화연구』 44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 참고문헌

- 권순희, 「가곡 연창 방식에서 중대엽 한바탕의 가능성」, 『민족문화연구』 44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 김용찬, 『교주 병와가곡집』, 월인, 2001.
- 김태웅, 「18세기 후반~19세기 초중반 가집의 전개 양상 연구-『병와가곡집』, 서울대본 『악부』, 『흥비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3.
- 김학성, 「시조사의 전개와 낙시조」,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 김흥규·이형대·이상원·김용찬·권순희·신경숙·박규홍,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 손완섭, 「고시조의 새 자료-가곡집 <여중락(與衆樂)>을 발견」, 《영남일보》, 1956년 9월 12일.
- 신경숙·이상원·권순희·김용찬·박규홍·이형대, 『고시조 문헌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 『악학습령』,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1978.
- 육민수, 「18세기 가집 편찬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탐색-『병와가곡집』 편찬 시기와 『청진』의 위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41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년 여름.
- 이상원, 「18세기 가집 편찬과 『청구영언』(정문연본)의 위상」, 『한국시가연구』 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Musical Pieces in Byeongwagagokjip(병와가곡집) and Its Status in the History of Songs - With a focus on Sakdaeyeop(삭대엽) and Nakheejo(낙희조)

Lee, Sang-won

This study set out to organize the musical pieces in Byeongwagagokjip (병와가곡집) and examine its status in the history of songs with a special focus on Sakdaeyeop(삭대엽) and Nakheejo(낙희조) in the anthology.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Sakdaeyeop(삭대엽) was Yuldangsakdaeyeop(율당삭대엽),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Sakdaeyeop(삭대엽) works in the anthology was very small, that a half of the concerned works in the later anthologies were Yuldangsakdaeyeop(율당삭대엽), and that the remaining works were sung between Woojo(우조) and Gyemyeonjo(계면조).

Nakheejo(낙희조) was interpreted to encompass the musical pieces in the family of "Nak(낙)" including Woorak(우락), Gyerak(계락), Eolrak(얼락), and Pyeonrak(편락) at the time of division between Woojo(우조) and Gyemyeonjo(계면조), considering that its location was different from that of anthologies in the 18th century and corresponded with the anthologies of the 19th century reflecting the division between Woojo(우조) and Gyemyeonjo(계면조).

When the organization of musical pieces in Byeongwagagokjip(병와가곡집) was considered including the character of Sakdaeyeop(삭대엽) and

the location of Nakheejo(낙희조), it becomes apparent that Byeongwagagokjip(병와가곡집) was the best anthology in terms of number of works and also the greatest one both in name and practice throughout Joseon at the transitional point between the 18th century anthologies to the 19th century anthologies.

Key words : Byeongwagagokjip(병와가곡집) , Eorak(얼락), Gyemyeonjo(계면조), Gyerak(계락), Nakheejo(낙희조), Pyeonrak(편락), Sakdaeyeop(삭대엽), Woojo(우조), Woorak(우락), Yuldangsakdaeyeop(울당삭대엽)

■ 부록 : 『병가』 낙희조의 타 가집 수록 현황

『병가』 낙희조	『해동풍아』	『시조』(경대본)	『청구영언』 (육당본)	『가곡원류』 (국악원본)
966 조오다가~	異 514 낙시조	235 우락 <sup>35)</sup>	792 우락	594 우락
967 지 너머~	72 이삭대엽	×	112 이삭대엽	×
968 물 아리~	×	237 우락	978 여창 우락	589 우락 811 여창 우락
969 綠楊芳草岸에~	607 만삭대엽	異 274 우락	異 974 여창 우락	異 509 농가 異 823 여창 우락
970 노식 노식~	527 낙시조	298 계락	762 계락	572 계락 832 여창 계락
971 아희야~	×	291 계락	756 계락	571 계락
972 웃는 양은~	530 낙시조	×	818 얼락	608 얼락
973 저 건너~	×	280 우락	713 룡	609 얼락
974 눈섭은~	×	異 261 우락	異 809 얼락	異 607 얼락
975 드립더~	×	×	641 룡	623 얼락
976 나는~	×	272 우락	819 얼락	605 얼락
977 開城府 장스~	543 낙시조	×	757 계락	557 계락
978 (宅들에~) <sup>36)</sup>	×	252 우락	714 룡	×
979 아흔 아홉~	×	×	異 724 룡	616 얼락
980 閻氏니~	558 낙시조	201 만삭대엽 계룡	616 얼룡	483 만횡
981 萬頃滄波之水에~	×	249 우락	972 여창 우락	807 여창 우락
982 白鷗는~	×	268 우락	816 얼락	599 얼락
983 李座首는~	×	188 만삭대엽 계룡	797 우락	591 우락
984 孫約正은~	637 만삭대엽	×	異 776 계락	異 559 계락
985 窓 내고져~	573 편락	×	782 계락	×
986 宅드레~	549 낙시조	276 우락	833 얼락	×
987 식약시~	556 낙시조	×	745 룡	×
988 白華山~	574 편락	×	806 얼락	598 얼락
989 龍マ치~	461 이삭대엽	×	447 이삭대엽	246 이삭대엽
990 소경놈이~	×	異 300 계락	異 772 계락	異 556 계락
991 가슴에~	529 낙시조	×	834 얼락	606 얼락

992 괴여 들고~	×	×	異 549 이삭대엽	×
993 바람도~	×	異 244 우락	307 소용 987 여창 계락	828 여창 계락
994 君이~	×	297 계락	758 계락	567 계락
995 지 너머~	×	×	890 편삭대엽	×
996 기름의 지진~	×	301 계락	750 계락	566 계락
997 閼氏님~	×	×	590 삼삭대엽	140 삼삭대엽
998 思郎을~	×	264 우락	980 여창 우락	824 여창 우락
999 靑山의~	異 538 낙시조	×	775 계락	×
1000 靑驄馬 타고~	×	290 계락	754 계락	553 계락
1001 물 아리~	517 낙시조	247 우락	793 우락	588 우락 812 여창 우락
1002 花灼灼~	×	異 310 계락	異 542 이삭대엽	異 850 편삭대엽
1003 岩畔~	×	109 이삭대엽	768 계락	573 계락
1004 崔行首~	159 이삭대엽	×	異 140 이삭대엽	×
1005 아희는~	520 낙시조	×	557 이삭대엽 異 752 계락	異 549 계락
1006 還上도~	521 낙시조	×	異 751 계락	異 561 계락
1007 흥흥~	367 이삭대엽	×	786 우락	×
1008 바둑바둑~	×	275 우락	814 얼락	617 얼락
1009 바람은~	532 낙시조	265 우락	976 여창 우락	613 얼락 814 여창 우락
1010 此生怨讎~	×	250 우락	822 얼락	612 얼락 813 여창 우락
1011 전 업슨~	638 만황	245 우락	825 얼락	595 우락
1012 싱미 곱튼~	×	×	817 얼락	618 얼락
1013 靑山도~	×	288 계락	982 여창 계락	826 여창 계락
1014 蜀道之難이~	×	294 계락	760 계락	550 계락
1015 흥 히도~	535 낙시조	299 계락	759 계락	554 계락
1016 思郎 思郎~	×	242 우락	981 여창 우락	810 여창 우락
1017 思郎을~	523 낙시조	×	979 여창 우락	825 여창 우락
1018 壽夭 長短~	×	3 이삭대엽	753 계락	異 569 계락
1019 닳는 말도~	異 515 낙시조	246 우락	802 우락	575 계락

1020 내 思郎~	518 낙시조	×	543 이삭대엽	×
1021 저 건너~	×	×	×	×
1022 藍色도~	569 낙시조	271 우락	748 계락	574 계락
1023 님과 나와~	519 낙시조	241 우락	970 여창 우락	815 여창 우락
1024 南山에~	×	295 계락	766 계락	555 계락 835 여창 계락
1025 다나 쓰나~	162 이삭대엽 589 만횡	289 계락	988 여창 계락	異 164 을당삭대엽
1026 清明時節~	537 낙시조	異 292 계락	異 777 계락	異 547 계락 異 834 여창 계락
1027 오늘은~	×	×	242 이삭대엽	×
1028 況是青春~	×	×	異 795 우락	異 596 우락
1029 玉의눈~	×	263 우락	836 얼락	158 소용 816 여창 우락
1030 언덕~	×	×	×	×
1031 君不見~	×	238 우락	791 우락	593 우락 819 여창 우락
1032 압논에~	606 만횡	異 223 얼롱	606 얼롱 975 여창 우락	478 만횡 820 여창 우락
1033 李仙이~	×	278 우락	784 우락	590 우락
1034 나는 마다~	×	×	異 882 편삭대엽	異 642 편삭대엽
1035 諸葛亮은~	×	226 얼롱	971 여창 우락	587 우락 808 여창 우락
1036 간밤에~	567 낙시조	×	808 얼락	×
1037 項羽   죽훈~	610 만횡	240 우락	821 얼락	601 얼락
1038 世上~	526 낙시조	239 우락	804 우락	×
1039 어이려뇨~	568 낙시조	×	813 얼락	×
1040 벼름갑이라~	異 542 낙시조	異 254 우락	異 824 얼락	異 621 얼락
1041 閼氏너~	544 낙시조	256 우락	780 계락	×
1042 日月星辰도~	533 낙시조	×	826 얼락	620 얼락
1043 北邙山川이~	507 낙시조	157 만삭대엽 계롱	842 얼락	×
1044 누고셔~	506 삼삭대엽	×	785 우락	544 농가

1045 宅들에~	異 550 낙시조	×	異 715 롱	×
1046 宅들에~	546 낙시조	×	778 계락	×
1047 눈아 눈아~	×	×	異 781 계락	×
1048 屏風에~	541 낙시조	異 293 계락	異 986 여창 계락	異 829 여창 계락
1049 식약시~	551 낙시조	×	異 855 편삭대엽	×
1050 고리 물 혀~	516 낙시조	×	815 얼락	619 얼락
1051 부러지 활~	534 낙시조	異 304 계락	異 767 계락	異 568 계락
1052 ㄹ올비 괴똥~	528 낙시조	255 우락	799 우락	558 계락 581 우락
1053 長衫 쓰더~	540 낙시조	308 계락	798 우락	563 계락
1054 正二三月은~	×	243 우락	794 우락	579 우락
1055 저 건너~	579 소용	×	300 소용	153 소용
1056 蜀魄啼山~	×	×	×	551 계락
1057 푸른 山中~	561 낙시조	×	801 우락	604 얼락
1058 閣氏너~	566 낙시조	×	×	157 소용
1059 머귀 여름~	×	×	737 롱	583 우락
1060 이 몸이~	×	302 계락	985 여창 계락	560 계락 831 여창 계락
1061 擊汰梨湖~	626 만황	×	608 얼롱	615 얼락
1062 술이라 헉면~	×	×	739 롱	×
1063 ㄹ올 打作~	294 이삭대엽	×	×	×
1064 鳳凰臺上~	618 만황	220 얼롱	848 편락	627 편락
1065 술 아리에~	×	312 편락	847 편락	626 편락
1066 한숨아~	572 편락	313 편락	853 편락	630 편락
1067 나무도 돌도~	575 편락	315 편락	850 편락	625 편락
1068 靑울치~	×	277 우락	851 편락	631 편락
1069 용산과~	×	×	546 이삭대엽	×

35) ‘우락’은 가집에 따라 ‘낙시조 우조’·‘우 낙시조’·‘우락’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락’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낙시조 계면’·‘계면 낙시조’·‘계락’ 등은 ‘계락’으로, ‘언락’·‘얼락’ 등은 ‘얼락’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36) 이 작품은 낙장으로 초장이 없다. ‘택들에~’로 시작하는 작품들이 『병가』에는 모두 ‘宅들에(드레)~’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여 이렇게 제시하였다.